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9주일
제36권 37호(다해) 2016년 8월7일

[묵상]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 >

"귀 천"

故 심온(深溫) 천상병(千祥炳)시몬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무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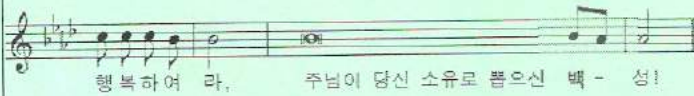
미사 지침

토요 저녁 미사	(연)이순자 레지나, 이용식 베드로
	(생)김민중 안드레아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율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민기남 모니카, 박노분 리디아, 김건목 & 심묘택, 고준희 제임스, 안지조 & 차소저 & 윤정숙 마리아 미카엘라, 이효희마리아 & 신현태, 박영식
	(생)박영식 안드레, 황윤재 베드로, 박정미 클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 마르코 & 엔지가정, 권오상 바오로,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정문주 프란체스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8,6-9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1,1-2.8-19<또는 11,1-2.8-12>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다. ㉠

복음 루카 (Luke) 12,32-48<또는 12,35-40>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91	191	191
봉헌	225	225	254
성체	292	292	286
과전	227	227	232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1. 천주교와 전통 종교

이와 같은 박해의 움직임은 개항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관이나 지방민들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척사운동'이 반포되기는 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박해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유교와 천주교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은 '조상 제사 문제'이다. 개항기 천주교회에서도 교황청의 이 결정에 따라 조상 제사를 미신 행위로 판단하여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상 제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받았다. 이에 조상 제사 문제가 다시 검토되었고, 1939년 로마 교황청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허용 시기는 너무나 늦었다. 조상 제사를 허용한 것은 신사 참배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데서 파생한 결과였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한국 천주교회는 불교를 범신론적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회는 불교가 지닌 정신문화적 가치와 조선 사회에서 불교가 발휘하고 있는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시 천주교는 불교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마저 갖지 못하였다. 개항기 이래 일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는 천도교를 비롯한 각종 신흥 종교가 성행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자신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흥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신흥 종교들을 불교나 유교보다 더 저급한 '미신' 행위로 보고 그들과 대화하거나 협동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통 종교와 신흥 종교에 대한 천주교의 태도는 조선에 수용된 지 일천한 천주교 신자들이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는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관습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는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4-2. 천주교와 개신교

조선의 개신교는 1879년 이응찬(李應贊), 서상륜(徐相崙, 1848~1926년) 등이 중국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조선 개신교는 신앙 공동체 형성 직후부터 성서 번역에 착수하였고, 1884년 미국계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천주교와 함께 개신교의 선교도 착수되어 그리스도교적 구원이 더욱 폭넓게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계속>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루카 12,34)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라고도 합니다. 웹 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 흘러 넘치는 정보 속에서 간혹 눈길이 머무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좋을 곳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담아 기사를 정리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떠나려면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경제력, 함께할 사람 등이 떠오릅니다. 이 중에서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해도 같이 간 사람들 사이에 뜻이 맞지 않으면 여행의 흥과 일정이 전부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하느님의 허락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단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의 여행도 그렇지만 인생 여행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을 누구와 함께 가꾸어 가고 또 어떻게 채우는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행에서 보물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 여행의 보물, 신앙 여정의 보물'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사건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사건에 대해 일러

줍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탈출의 "그 밤" (지혜 18,6)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일깨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히브 11,1)인 믿음에 대해 일러 줍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해방의 그 밤과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의 행위는 하느님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일깨워 주는 신앙 여정의 보물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카 12,34)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보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는 중"(루카 12,37)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느님을 찾고, 하늘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을 둘 줄 아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8월15일 (월요일)
 ● 아침미사 : 오전 8시30분

-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제5회
 장학금 수여식: 오늘 주일 낮 11시 미사 중
 ● 선발된 수혜학생 7명 : -가나다순
 김지수(Helena), 김지예(Christina), 김호재(Urisino)
 박 John (John), 신 Monica (Monica), 이진욱(Michael)
 한혜림(Katherine)
- ◆ 아침미사 성인복사 하실 분은 본당 수녀님께 연락바랍니다.
- ◆ 올해 새로 임명되신 구역장과 반장 명단입니다.
 - 토런스 남구역장 : 김희연 루시아
 - P.V. 구역장: 송인선 안젤라
 - 토런스 동1반장: 오신재 메히틸다
 - 토런스 서1반장: 박동수 베드로
 - 토런스 서2반장: 최양숙 안젤라
 - 토런스 남3반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 P.V3반장: 신혜정 로사

- ◆ 본당 견진성사 안내
 본당 견진성사가 9월11일(주일) 오전 11시에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을 모시고 거행됩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일시 : 2016년 9월11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주교님
- 견진 교육 : 영성피정 이수자
 (6월2일~6월5일, 신앙성숙과 쇄신을 위한 영성피정)
- 견진신청 마감 : 8월 28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377-7063

◆ 주일학교 견진반 1,2 등록접수...사무실에

- 대상 :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부터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담당교사: 서정우, 제니퍼 현, 써니황

◆ 청소년 분과 봉사자 교육

- 주제 : 2016-17년도 일정과 성당 봉사에 대하여..
- 일시 : 8월 27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강당
- 대상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청소년 분과 봉사자와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교우 분들
- 신청마감 : 8월 21일 까지 (310) 692-8755
 *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신청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 초등부 교사 3 명
- 한국학교 :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 명
- 밴드부 교사 1 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 명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 9월 18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77-777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14일 : * 토복1,2반 (잔치국수 \$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금동균 김광호 김병조 김병주 김상근 김선영 김옥찬 김 은 김인성 김정희 박동수 박종열 박진수 양영관 오일순 유보나 윤화경 이태옥 임한나 장영진 차인수 최기남 최 일 최태훈 호경진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금동균 김병조 김정희 박진수 양영관 윤화경 임한나 장영진 차인수 최기남 최 일 최태훈
	합계: \$3,570		합계 : \$1,830
주일미사헌금 : \$1,927		감사헌금(서예반) : \$100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백삼위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14일~8월 28일 매주 일요일 (총 3 회)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2. 백삼위 여름 수학 교실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 모으기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남가주 소식

◆ 교구 지문날인(Finger Print) 조회 안내

- 일시 : 8월13일 오전 10시~오후1시
오후 3시~5시20분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성가대 방
1451 Dana St. Los Angeles, CA90007
- 문의 : 성 아그네스성당 사무실(323-731-4433)

◆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 성서 사십 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준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유철희 바오로 8/10(수) 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릭 8/13(토) 오후6시30분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8/20(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김인성 스테파노 8/13(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8/14(일)11시미사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8/19(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8/9(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8/21(일) 오후 6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4(일) 오전11시De Portola Park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해나 베네딕타 8/12(금) 오후 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8/20(일)엘림온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8/13(토) 오전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8/9(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전례의
선물

제 7 화

제의의 색깔



글: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그림: 박우철 도밍고

신부님, 제의 색깔 너무 멋있어요~
다음에는 색동저고리 제의
한 번 입어보시는 건...



사순 제4주일 분홍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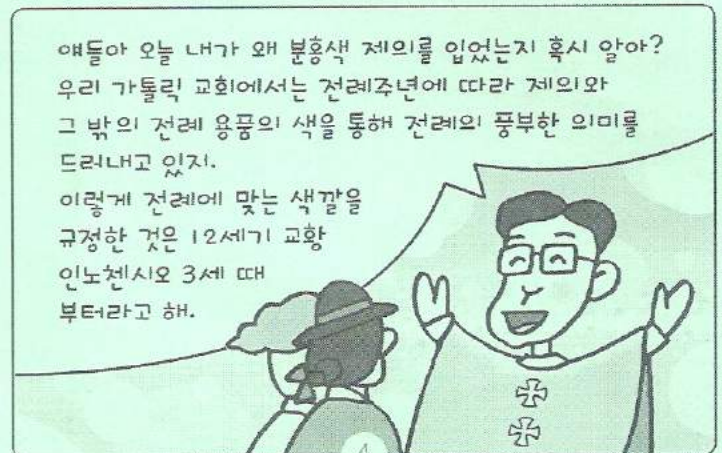
우와~ 오늘 신부님 제의
색깔이 귀엽고 멋지네!
분홍색이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말이야.



2

애들아 오늘 내가 왜 분홍색 제의를 입었는지 혹시 알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례주년에 따라 제의와
그 밖의 전례 용품의 색을 통해 전례의 풍부한 의미를
드리내고 있지.

이렇게 전례에 맞는 색깔을
규정한 것은 12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 때
부터라고 해.



4



백색은 기쁨, 영광, 결백을 상징. 성탄과
부활시기, 예수님의 모든 축일(수난축일 제외),
성모님 축일, 천사들과 성인들 축일에 사용.

홍색은 뜨거운 사랑과 피, 즉 희생을 상징.
주님의 수난 관련 축일, 성령강림대축일과
피를 흘려 순교한 성인들을 기념할 때 사용.

자색(보라색)은 통회와 속죄를 상징하는데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이 색을 사용해.

5



녹색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중 주일과
평일에 사용되지.

제의 이미지 출처: 바오로팔 콘텐초
작가: 김선미 수녀

참 분홍색 혹은 장미색으로 된
제의를 입는 때는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인데 성탄과 부활을
앞두고 잠시 휴식하며
기뻐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6

그럼 장례미사 때는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세요?
죽음이니까 검은색을
입나요?



전에는 검은색 제의를 입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넘어 부활을
희망한다는 뜻에서 흰색 제의를 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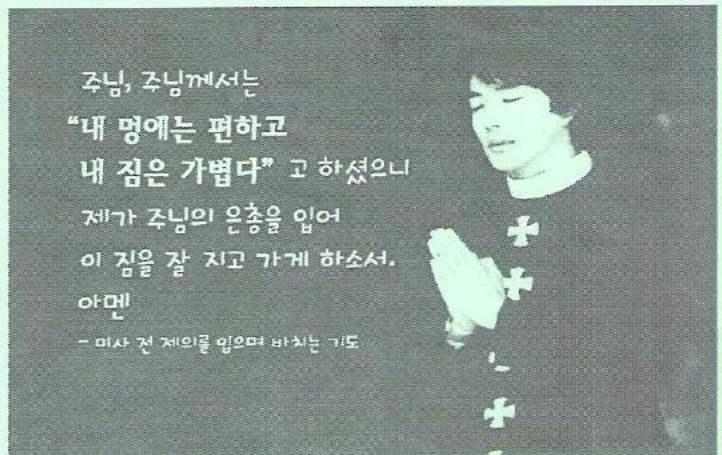
자, 이제 분홍색 제의가
그냥 멋으로 입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겠지?



7

주님, 주님께서는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아멘

- 미사 전 제의를 입으며 바치는 기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사람들을 피해 유다 지역을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 지역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성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몹시 지치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때는 정오쯤 되어 뜨거운 햇빛에 인적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4,1-7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이방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부탁을 하느냐면서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이야기를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4,8-14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 를 버려 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는 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사람들은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4,15-42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한 후 이민족들의 종교와 혈통이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은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와 같은 존재들, 비열한 백성이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는 일부러 사람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이 되어 ()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이심을 알게 되었소.” (요한 4,42)

미안해요,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나와 친한 사람을 믿습니다.
선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정의와 선함은 오간 데 없고
내게 친절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친한 사람이 정의로움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선함이라
믿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영 아네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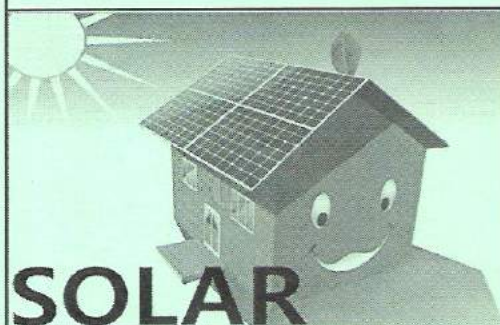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채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빌리나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티노

16118 Halldale Ave.

Gardena CA90247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